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 예향



전남문화재단 ‘블루아트페스타’  
6~16일 나현·강홍구 등 6명 참여  
토탈미술관 공동기획 ‘로드쇼’ 주제



양경렬 작 '100개의 풍경'

##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리는 예술축제

지난해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선출)이 처음 진행한 ‘블루아트페스타’는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예술과 접목시킨 기획이었다. 재단은 올해도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정책과 연계, 섬과 다양한 생태, 자연,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축제 ‘2022 블루아트페스타’를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술의 섬 여수 장도에 위치한 장도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 관람과 함께 ‘예술의 섬’ 장도를 탐방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문화나들이다. 올해는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토탈미술관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로드쇼 : 여수에서 신안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전남에서 나온 자란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들은 전남을 여행하고 기록한 전남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영상, 사진,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역사적 사건 너머의 여백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채워 ‘다큐-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염점을 활용한 영상 작품 ‘신안-증도’를 선보인다. 강렬한 색채와 빛깔로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합쳐놓는 ‘편집화화’를 추구하는 양경렬 작가는 작은 100개의 사각형 프레임에 바다, 산, 나무, 풀, 꽃 등 다채로운 자연과 인물 등을 그려넣은 ‘100개의 풍경’을 전시한다. 또 대중매체에서 빌려온 이미지로 초현실적인 합성

사진 작업을 진행하는 강홍구 작가와 박병래, 이원호, 최은숙 작가도 개성있는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가 열리는 장도는 ‘예술의 섬’으로 불리는 곳이다. 전남도와 여수 GS칼텍스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전시장과 공연장을 갖춘 예술마루와 함께 인기가 높다. 예술마루에서 진심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서면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함께 곳곳에 전시된 조각품을 만날 수 있으며 전시관, 레지던시공간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물때에 따라 진심 다리가 통제됨으로 예술마루 홈페이지에서 통제 시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추석 연휴 기간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근대조각 선구자 ‘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 도시벽화, 칙칙한 회색도시에 색을 칠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9월호(통권 323호)가 나왔다. 이번 호의 표지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이다. 그는 ‘근대 조각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장이지만 생전에는 단 세 차례의 개인전 밖에 열지 못한 비운의 천재이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10월 23일)을 지면에 소개한다. 특집은 ‘도시벽화, 회색도시에 색을 칠하다’로 준비했다. 어느 곳이든 삭막한 콘크리트 회색도시에는 온기를 불어넣고 색을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성과 조화를 이룬 ‘환경색채 디자인’과 주민 주도의 ‘도시벽화’는 칙칙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색채 마케팅을 소개하고 광주 남구 양림동, 송정동 동화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등 이튿날 ‘벽화마을’을 찾아간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최근 ‘사진기와 열하일기’를 펴낸 박하선 님 사진가이다. 작가는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대장정을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천명(天命)으로 여기고 고인들과 밭해, 고구려, 단군조선, 조선의용군 등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진실을 찾아 기록하고 있는 작가를 만나 그의 사진세계에 대해 들었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사비나미술관을 찾아간다. 사비나미술관은 16년간의 한국동시대 미술마감하고 지난 2018년 진관동으로 이전한 사립미술관이다.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건물 설계부터의

기부합한 ‘AA프로젝트’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주차장에서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사비나미술관을 소개한다. ‘광주 한 바퀴’에서 둘러볼 곳은 무등산 자락에 형성된 미술관 거리다. 남종 문인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의재미술관을 시작으로 인간·환경·문화·예술의 조화를 강조하는 무등현대미술관, ‘교육하는 미술관’을 표방하는 국운미술관, 젊은 작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드영미술관, 여기에 미술관 거리의 중심에 자리한 전통문화관이 윤림동 아트밸리를 완성하고 있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殊路’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美港) 여수’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로 향한다. 낭만적인 밤바다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힐링 트레킹 코스인 ‘금오도 비렁길’, 고흥-여수를 정글다리처럼 연결하는 ‘섬섬 백리길’, 돌산갯길지와 방풍을 넣어 만든 양갱 등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진면목을 찾아 나선다. 지난호에 이은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여행 두 번째는 대자연의 숨결과 마야, 잉카 문명의 흔적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외에 ‘해외문화기행’ 세계 미술애호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뮤지엄 광장,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고운 최치원의 배향 정을 무성서원, 위기에서 빛나는 KIA타이거즈 투수 윤중현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안중근” ‘돈키호테’ 주요장면만 모아... 익숙한듯 새로운 공연

M발레단 양영은 단장  
스페셜 갈라 ‘New & Classic’연출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



양영은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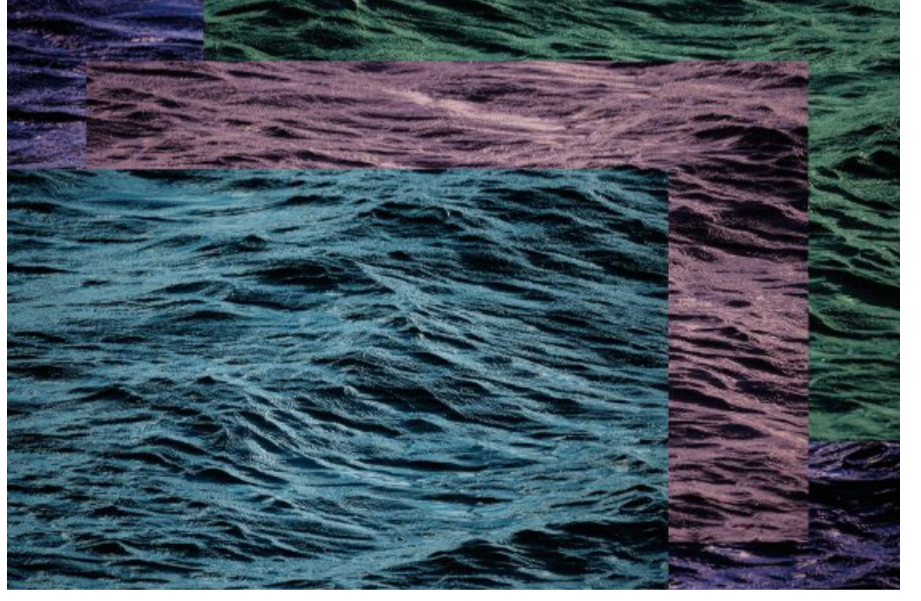
국내 클래식 발레 공연 안무는 해외 저작권을 구매해 공연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만의 안무로 작품을 구성해 우리 발레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M발레단의 행보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영은 M발레단 단장은 “지난 2015년 창단한 M발레단은 다양한 창작작업과 클래식을 우리 것으로 새롭게 프로덕션하는 것에 발레단의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오는 3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M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New & Classic’ 공연에서 연출을 맡는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의 사의 생애를 그린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과 고전 발레 ‘돈키호테’를 주요 장면만을 모아 펼치는 공연이다. 특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양단장이 직접 연출과 대본을 맡아 창작한 작품이다. “2015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작’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으로 올해 대한민국발레축제 개막작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공연을 해오면서 대본도 탄탄하게 수정했고, 창작당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작품입니다.” M발레단이 자신들만의 프로덕션을 쫓고 있는 만큼 이날 선보이는 ‘돈키호테’는 문명남 예술감독의 안무로 공연된다. 예원학원을 나와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에 자리한 M발레단 소속이던 양 단장이 광주에서 공연을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올해 광주시립발레단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기념 공연 ‘오월바람’에 연출을 맡은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명남 예술감독님이 안무를 맡아 초연한 ‘오월바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오월바람’을 주제로 논문(A&HCI급 국제학술지 게재)을 썼습니다. 이후에 문 감독님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고 함께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양 단장은 갈라 공연만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된 점이 아쉽다며 전막공연으로 다시 한번 광주를 찾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양 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창작작업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민서 작 '신기루'

## 대학생 창작뮤지컬 ‘청춘일기’ ... 4일 ACC 예술극장

‘청춘들의 창작 뮤지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이하 ACC재단)과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이 4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서 대학생 창작뮤지컬 ‘청춘일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진 대학생들을 선발해 뮤지컬 배우로서의 성장을 돕는 KT&G 상상유니브 ‘유니-브로드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ACC재단은 지역 청년들의 창작 기회 및 무대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KT&G 상상유니브와 협업해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뮤지컬 ‘그리스’, ‘맘마미아’ 등 총 6편의 작품을 ACC 무대에 올렸다. 올해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청춘일기’는 대학생의 다양한 사연을 시나리오화 한 작품으로 연애, 우정, 군



대 등 현 시대 청년의 감정과 소소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뮤지컬 공연과 함께 대학생들이 만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같은 날 예술극장 로비에서는 ‘청춘 사진전’이 열리고, ACC 플

라자브릿지에서는 대학생 플라멩코와 청춘버스킹도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권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35명의 작가가 풀어내는 ‘상상’

‘포토와이’ 53번째 정기 회원전, 7일까지 갤러리 D

‘청년들이 펼치는 상상의 나라.’ 조선대 사진예술 연구회 포토와이(PHOTO-Y)는 1970년 창립 후 50여 년이 넘게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사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진행해왔다. 포토와이의 53번째 정기 회원전이 오는 7일까지 갤러리 D(광주 동구 대의동 소재)에서 열린다. ‘상상’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에는 모두 35명의 회원이 참여해 ‘신기루’, ‘나의 상상’, ‘선데이 서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상’의 이

미지를 다양한 소재와 색감, 구도, 기법을 통해 자유롭게 전달하고 있다. 20대 대학생이 갖고 있는 풋풋한 상상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마음, 세상에 대한 질문 등을 다채로운 영글에 담아냈다. 그들이 풀어내는 ‘상상’은 잃어버렸던 꿈일 수도, 힘든 현실을 잊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자양분일 수도 있다. 참여작가는 강민서, 김지현, 한재우, 김대현, 김민수, 공선우, 김서원, 김세은, 김인영, 김재원, 김현승, 김형준, 나세미, 마준빈, 박민재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